

은희경과 리앙 소설 속 여성의 성적 욕망과 주체의식 비교 - 「먼지 속의 나비」와 「北港香爐人人插」를 중심으로*

신 춘 란

(고려대학교 비교문학 · 비교문화협동과정 박사수료)

조 영 준

(나고야대학 인문학연구과 박사과정)

◆ 국문초록

한국 작가 은희경의 「먼지 속의 나비」와 타이완 작가 리앙의 「北港香爐人人插」는 여성의 성적 욕망을 통해 여성 주체의식의 확립을 시도한 작품이다. 두 소설 속 여주인공 최선희와 린리즈는 사회와 주변인들의 비난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권리를 주장하며, 여성의 '몸'은 남성에게 지배되거나 성적 대상이기만 한 것이 아닌 여성 자신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최선희는 구속적이지 않은 성 가치관을 지니며, 자신의 에세이에서 한 명의 여성이 복수의 남성과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이야기를 묘사하기까지 한다. 성의 문제에 있어 남녀 간에 차별적인 사회의 윤리관에 맞선다는 측면에서 최선희의 반항의식은 진보적으로 보이지만, 그녀가 의도적으로 남성들을 모방하는 듯한 행위는 오히려 그릇된 남성적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 린리즈는 활발하게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며 여성의 '몸'을 통해 남성으로부터 권리를 되찾자고 분투한다.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실현하기 어려웠고, 사회적으로 남녀 관계에 있어 종속적인 위치에 놓여있던 기존의 인식을 전복한다는 측면에서 린리즈의 적극적인 정치 행보는 진보적 의의를 지니지만, 그녀 역시 여성의 신체가 상품으로 작동하는 상황을 타파하지는 못한다.

주제어 : 은희경, 리앙, 여성의 욕망, 여성의 몸, 주체의식

* 본 논문은 2018년 6월 27일에 중국 하문(廈門)대학 타이완연구원 주최로 열린 第五屆“兩岸學子論壇”에서 발표한 원고의 한국어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들어가며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타이완은 모두 유교 사상을 계승하였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타이완 모두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자본주의 체제 속 급속한 경제 성장 시대를 지나왔다. 유사한 역사의 상처와 폭력의 기억 속에서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었던 한국과 타이완 여성의 성(性)과 관련된 주체의식 문제는 페미니즘과 한국·타이완 비교문학의 영역에서 중요한 연구 과제로 볼 수 있다.

타이완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 문화 및 자본주의 억압에 놓인 본토 여성의 비참한 상황이 눈에 띄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신여성주의 사조의 발현은 양성(兩性) 사회의 변명과 화해를 주장하며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기초로 하였다.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타이완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고, 여성운동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1980년대 이후 타이완의 여성문학은 신여성주의 사조와 여성 해방 운동의 동시적 발전 하에 기존의 남성 중심주의적 굴레에서 벗어나 남녀평등의 사회적 자아를 이루는 여성들의 각성의 문학으로 전개되었다.¹⁾ 선명한 여성의 주체의식 및 풍부한 사회적 의미, 강렬한 비판 정신, 남성 중심 사회 및 전통적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담긴 여성주의 문학이 번영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여성 작가의 주된 관심이 여전히 여성의 사적인 삶에 머물렀다면, 1990년대 타이완 문학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여성 문제와 정치 문제가 결합된 소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성 작가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를 절절히 호소하는 한편, 자신들의 작품 속에서는 섹슈얼리티와 권력의 문제를 연결 지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70년대의 세계적인 여성운동의 물결에 따라 여성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박경리, 박완서, 오정희 등 굵직한 여성 작가들이 문단에 등장하였다. 1980년대에는 여성들 스스로가 문학작품에서 자연스럽게 여성의 억압에 대한 저

1) 백영길, 『현대의 중국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5, 346쪽.

향과 분열된 여성 정체성에 대한 탐색을 보이기 시작한다. 광주항쟁을 시작으로 민주주의와 반미를 넘어서 반제국주의를 부르짖던 격동의 시기이자 투쟁의 기간이었던 이 시기의 문학은 다양한 양상으로 사회적 혼란상을 반영하였다.²⁾

이어 199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여성 작가들은 외부의 세계보다는 여성의 일상과 내면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이들은 여성의 자아 찾기와 여성의 욕망에 대한 표현을 작품의 주제로 삼았다. 독립된 주체로 인정받기를 바라며 그동안 억눌려 왔던 여성들의 성의식이 다양으로 분출된다.

1990년대는 또한 ‘성’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때의 성(性)은 젠더(gender)이기도 하고 섹스(sex)이기도 하다. 섹스의 문제에서 이성이나 도덕에 대한 저항으로 급부상한 육체 자체는 그동안 억눌려 왔던 감성과 본능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런 육체에도 권력이 작용하여 감시, 통제, 규제를 통해 복종적이고 유순한 육체를 만들어낸다는 이면이 있다.³⁾ 이러한 시대였던 1990년대에 한국과 타이완의 여성 문학계에서 섹슈얼리티에 대해 재고하며 지속적으로 여성의 주체의식을 확립하려는 시도를 해온 작가의 대표적인 예가 은희경과 리양이다. 은희경은 여성들이 직면한 현실 문제에 천착하여 왔으며, 여성의 욕망을 억누르는 기존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자세로 주목받아온 작가이다. 리양은 타이완 문학에서 서로 분리되었던 여성, 정치, 욕망의 세 가지 문제를 최초로 결합⁴⁾하며 적극적으로 여성의 주체의식을 확립해온 작가이다. 그녀들의 작품 속 여성들은 기존 남성사회의 성 윤리와 도덕관념에 위반된 행위를 보이며, 강한 저항의식 속에서 뚜렷한 자기 주체의식의 확립을 시도한다.

본 논문에서는 적지 않은 유사성이 보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무했던 두 작가의 비교연구를 시도해 볼 것이다. 연구 대상 작품은 은희경의 소설집 『타인에게 말걸기』(1996)에 수록된 「먼지 속의 나비」와 리양의 소설집 『北港香爐人人插』(1997) 속 표제작 「北港香爐人人插」이

2) 한국어문화연구소 편, 『여성, 문학으로 소통하다 - 1980년대 여성문학』, 한국어문화연구소, 2011, 참고.

3) 한국문학연구회,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한길사, 2000, 26~27쪽 참고.

4) 여성, 정치, 욕망의 세 가지 문제가 잘 결합된 작품들로는 『迷園』(1991)과 『北港香爐人人插』 등이 있다.

며, 2장에서는 텍스트에 드러난 여성의 성적 욕망을, 3장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욕망을 향한 사회적 시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어 4장에서는 특정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두 텍스트에 나타난 여성 욕망의 차이점과 그 한계를 분석해본다. 이를 통해 1990년대 한국과 타이완 여성문학에서 여성의 욕망을 통해 확립된 여성의 주체의식을 고찰해보며 성평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여성의 몸-성적 결정권의 주체화

신체는 공간적인 존재로서, 신체에 대한 규제와 억압도 공간으로부터 시작된다. 신체 공간을 젠더 정치학의 시각에서 볼 때, 젠더와 신체, 그리고 공간은 권력이 통제하는 장소이며 영역이다.⁵⁾ 이처럼 여성의 몸(신체)은 가부장적 공간 속에 존재하는 동시에, 문화적인 영역에서 볼 때 여성의 몸 그 자체 역시 정치·권력적인 공간이다. “여성은 역사에서 줄곧 어떤 공간으로부터 배제되어있거나, 어떤 공간에 한정되어있다”⁶⁾는 말을 빌려 표현하면, 여성은 언제나 여성의 몸으로부터 배제되었거나(즉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혹은 여성은 늘 공간적인 여성의 몸에 갇혀 있었다(즉 여성은 자신의 몸을 지배할 수 없었으며, 남성이나 외부에 의한 운명에 의존해야 했다).

은희경의 「먼지 속의 나비」 속 여주인공 최선희는 잡지사의 자유기고자로 자유로운 성 가치관을 지니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여성이다. 최선희는 개방적인 성 관념을 지닌 여성으로, 그녀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돈다. 예를 들면 그녀가 동족이라서 밤에 누가 데려가면 선서를 외친 다음 잠자리를 할 것이라든지, 같이 잔 남자가 섹스 중에 무슨 말을 했는지 날날이 적은 『섹스 잠언집』을 쓰고 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잡지사의 한 동료

5) 謝納, 「性別、身體與空間」, 『文藝爭鳴』5, 2012, 49쪽.

6) 蘇紅軍, 柏椽, 『西方后學語境中的女權主義』,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 48쪽. (謝納, 위의 논문 49쪽에서 재인용.)

는 그녀가 남성들의 음담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았다. 이 소설 속에서 최선희와 대립하는 인물로 그려진 또 다른 여성 방혜원마저도 잡지사의 박주원에게 최선희가 “걸레”가 맞다고 말한다. 최선희의 대학 동기기도 한 방혜원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 반발하는 면에서 일면 진보적 성향을 지닌 여성처럼 보이지만, 결국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적 윤리관을 대변하는 여성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선희는 자신을 둘러싼 소문들에 대해 전혀 굴하지 않는다. 최선희는 자신을 사모하는 잡지사의 박주원이 “너, 남들이 너에 대해 뭐라고들 하는지 아니?”라고 물을 때, 당당하게 “뭐래, 걸레래?”라고 반문한다. 이어서 박주원이 “넌 그럼 정말 아무하고나 자니?”라고 물었을 때 최선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넌 길음동이나 청량리 안 가? 남성들은 좋아하는 여자랑 자는 것과 창녀랑 자는 것을 꼭 구분하려고 하더라. 창녀랑 자는 것은 남자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 논외로 하고, 자기는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자니까 아무하고나 자는 건 아니라는 거야? 난 그런 구별은 안 해.”⁷⁾

두 남녀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듯이 성에 대한 남성의 의식은 이중적이다. 남성은 집창촌에 가도 괜찮지만, 여성은 아무하고나 자면 안 되고, 남성은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과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성을 구분한다. 남성은 누구와 자도 상관없지만, 여성은 이성(성적) 관계가 복잡하면 ‘걸레’로 비난을 받게 되는 당시의 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언제나 차별적이었다. 최선희는 남성에게는 성적 쾌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여성에게는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남성들의 차별적인 구분을 비롯한 부당한 사회적 시선에 저항하고, 이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최선희는 남녀 차별화 문제의 핵심을 전통적인 성문화의 잘못으로 귀결시킨다. 그녀는 “진실하다면 누구든 섹스로부터 자유롭”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이 삶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내 잘못이 아니”(271)라 세상의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세상의 잘못’이란 성에 대한 전통문화와 사

7) 은희경, 『타인에게 말걸기』, 문학동네, 2004, 264쪽.

회 제도의 불합리성을 뜻한다. 그녀는 남성적 사회질서와 성 윤리 규범에 구속 받지 않고, 성의 진실성을 추구하며 인간적 자유를 갈구한다. 최선희의 행동이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정상적 규범에서 벗어나 있기에 그녀는 주변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희는 성관계에서의 주도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주체의식을 확립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최선희의 남녀 차별에 대한 저항의식은 그녀가 집필한 「섹스, 우리 삶의 애뜻함」에서도 드러난다. 이 에세이에서 최선희는 한 여성이 하루에 차례로 두 명의 애인을 만나고 그들과 맺은 육체적 관계를 섬세하게 묘사한다. 첫 번째 애인과 관계를 가진 여주인공의 심정을 밝힌 부분에서 최선희는, “너무 따뜻하고 편안하여 나는 정 붙이고 산다는 일이 꽤 다정한 일임을 느꼈다”(269)고 서술하였고, 두 번째 애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와 한 몸이 되고 이로써 각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가 완전히 나만의 것이라는 기쁨, 그런 것이 감격스러웠을 뿐이다. 그 감격이 너무 벅차고 서정적이어서 나는 섹스의 아름다움을 느꼈다”(270)라며 그 솔직한 감정을 드러낸다. 여성의 의식은 그것을 체험해주는 육체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게 된다. 감각에 토대를 둔 글쓰기는 세계와 자아에 대한 추상적, 간접적, 이성적 인식을 배제하고 육체가 직접 그것들과 접촉해서 느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⁸⁾ 최선희는 바로 이러한 여성적 글쓰기를 통해 남성 중심적 질서에 명시적으로 도전한다.

박주원은 오랜 구애 끝에 최선희와 성관계를 갖게 된다. 하지만 그는 『섹스 잠언집』을 떠올리며 「섹스, 우리 삶의 애뜻함」의 원고 내용이 진짜 경험담인지 최선희에게 묻는다. 박주원은 최선희가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고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표하며 그에 대한 사랑을 맹세하리라 생각하지만, 이런 그의 기대는 어긋난다. 박주원이 자신을 그의 여자로 종속시키고자 하는 소유욕을 드러냈다고 판단한 최선희의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최선희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서 박주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8) 안혜련, 『페미니즘의 거울』,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1, 261~266쪽 참고.

“매춘으로 하자”

(중략)

“돈 받기 싫으면, 성폭행으로 치든지.”

선희의 말에는 아무 감정도 들어 있지 않았다.⁹⁾

매춘이란 흔히 남성적인 언어이다. 매매춘의 경우 성을 매매한다는 것, 성을 상품화한다는 것, ‘몸을 팔고 산다’는 것은 바로 성적 서비스를 매매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페미니스트는 매매춘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보고 이를 반대한다.¹⁰⁾ 여기서 최선희는 기존 매매춘에서의 남녀관계를 뒤흔들며, 한발 더 나아가 여성인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성관계에서의 남녀 지위를 관념적 차원에서 전복한다. 이연숙은 은희경의 『타인에게 말걸기』의 여성 주체는 남성 주체와의 등가 교환 방식의 진술로 양성대립을 강화하는 진술을 보인다고 분석하며 최선희는 남성의 일반적 특질을 가진 존재라고 평가한다.¹¹⁾ 하지만 최선희가 남성적 특질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녀가 남성적 언어를 통해 남성과의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고자 한 그 저항적인 행동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앞에서 남녀 간의 성관계에서 최선희가 남성과 동등한 선택을 추구한 데서도 알 수 있다.

「北港香爐人人插」는 운동권에 있는 장밍타이(江明臺)라는 남성의 결혼식 현장을 소개하면서 시작된다. 소설에서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장밍타이와 한때 관계를 가졌던 린리즈(林麗姿)라는 여성이 결혼식에 와서 소란을 피울 수 있다는 얘기를 주고받는다. 린리즈는 데모에서 알게 된 진보적인 남성 장밍타이와 성관계를 갖게 되지만, 그 후 그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성이다. 소문에 의하면 린리즈는 4~50명에 이르는 반독재운동 진영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이처럼 루머의 대상으로서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린리즈도

9) 은희경, 앞의 책, 276쪽.

10) 고정갑희, 『성이론 성관계 성노동 성장치』, 여이연, 2011, 96쪽.

11) 이연숙, 「은희경 소설에 나타난 여성 주체 연구 - 「타인에게 말걸기」와 「그녀의 세 번째 남자」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7,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2, 150쪽.

역시 최선희 이상의 ‘충격’적인 행보를 보인다. 장명타이에게 복수를 다짐한 린리즈는 적극적으로 정계에 진출하여 의원으로 당선되며 여성 권력 쟁취 모임에서 발언을 하는 기회도 가지게 되는데, 그 발언의 장에서 린리즈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나타나, “여성의 신체로 남성을 전복시키자!”(163)라고 말한다. 엘렌 식수에 의하면 여성에게 있어 발언권을 잡고 말한다는 것은 자기 담론의 논리를 온몸으로 생명을 다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여성은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자기 몸으로 의미해낸다.¹²⁾ 린리즈는 바로 자신의 확고한 관점과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린리즈의 옷차림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 그녀는 “매우 짧은 미니스커트”에 “팽팽하고 번쩍이는 티셔츠를 입어 몸의 곡선이 완전히 노출되었다. 물론 옷의 목둘레도 상단이 파여 있었다”(161)라고 서술되어 있다. 우선 이와 같은 과감한 의상과 신체 노출은 여성 단체모임에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과 충격을 준다. 다리와 가슴 그리고 몸의 라인을 노출시킨 것은 린리즈가 억압되었던 여성의 몸을 당당히 내세운 전략이다. 이러한 시도는 상실되어 왔던 여성의 몸에 대한 지배권을 더는 남성에게 맡기지 않고 여성 스스로가 신체의 소유권을 되찾아 자신의 몸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고 무기로도 내세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명타이로 대표되는 정치진영의 남성들은 겉으로는 여성을 신경 써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몸을 함부로 착취한다. 린리즈는 정치 진영 남성의 허위의식을 권력과 연관 짓고, 여성이 피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려면 남성에게 빼앗긴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인식한다. 린리즈는 남녀관계, 나아가 사회와 정치권에서 여성이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은 여성의 몸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후 2.28사건 추모회에서 등부터 허리까지 깊이 파인 원피스를 입고, 피해자 유상(遺像) 앞에 나선 린리즈는 또 한 번 여론을 들썩이게 한다. 린리즈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뒤 “나를 보세요!.....”, “투명화된 역사를 보세요”(169~170)라는 발언을 하는데, 이는 다음날 곧 가장 큰 기사가 되어 신문에 오르게 된다. 린리즈는 몸을 책략으로 내세워서 쉽게 언론의 중심에서 서게 되었다는 비난도 받지만, 처음부터 그녀는 온갖 거슬리는 질책에도 불

12) 엘렌 식수, 박혜영 옮김, 『메두사의 웃음/출구』, 동문선, 2004, 113쪽 참고.

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시켰고, 특별히 남성과의 성관계에서 스스로 주도권을 선포한다. 린리즈는 “내가 그들과 잤어, 그들이 나와 잔 것이 아니라”(173)는 전복적인 발언을 하는데, 이는 기존의 남녀 성관계에서 항상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있었던 여성을 주동(主動)적 위치로 옮긴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여성 주체의식의 각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여성의 몸은 여러 다양한 의미를 지닌 공간이다. 하오위상(郝譽翔)은 이 소설이 제목에서부터 이미 한차례의 비웃음과 방종, 속어와 패덕, 과장된 언어(비난)가 뒤섞인 카니발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신체는 사회의 권리가 강제적으로 집행되는 공간이지만 카니발은 억압당한 신체 자유를 되찾는 공간인 셈이다.¹³⁾ 자신의 몸을 가리고 때로는 노출하는 것은 모두 린리즈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이러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그녀의 주체적인 선택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최선희와 린리즈는 단순히 성적 욕망을 표출한 것만이 아니다. 최선희의 행동에는 기존의 질서에 반항하고 여성의 자유를 추구하려는 의식이 짙게 배어 있으며, 린리즈의 그것에는 사회적인 권력을 얻으려는 목적이 내재해있다. 여성의 몸은 욕망을 발현시키고,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주체적 자아 탄생의 시작점¹⁴⁾이라는 면에서 그녀들은 자유의지로의 공간인 몸을 통해 상실된 여성 주체의식의 회복을 꾀한다.

3. 방종인가, 저항인가?

-먼지와 나비/향로(香爐)로 상징화된 여성의 성

사회적으로 여성의 성은 남성적 위계질서에 억눌린 채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왔고, 여성의 성에 대한 자유로운 행동은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여성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은 크게 두 가

13) 郝譽翔, 「世紀末的女性情慾帝國/迷宮/廢墟-從『迷園』到『北港香爐人人插』」, 『東華人文學報』7, 2000, 197쪽.

14) 김순진, 「여성의 몸과 몸의 공간 - 장애령 소설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25,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00, 218쪽.

지이다. 전통적 성 역할을 받아들이고 가부장적 규범에 순종하면 ‘착한 여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쁜 여자’가 된다. ‘성모와 매춘부, 또는 ‘천사와 ‘-년’으로 일컬어지는 이 두 가지 역할에서 여성은 오직 가부장적 질서와의 관련성으로만 평가된다.¹⁵⁾ 이에 ‘착한 여자’가 되지 못한 ‘나쁜 여자’에 대한 비난은 늘 끊임없이 있었다.

「먼지 속의 나비」에서 최선희는 잡지사의 김선배를 비롯한 남성들로부터 ‘독종’, “개”라는 비칭을 받는다. 이현주가 분석한 바와 같이 김선배는 남성들의 권력을 지키고자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을 고립시켜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으로 재생산해 나가기를 원한다.¹⁶⁾ “말끝마다 모든 비유와 표현의 대부분이 성기, 잠자리, 똘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254)는 김선배 류의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마저 없을뿐더러 최선희처럼 성의식이 자유로운 여성들은 그들의 눈에 ‘걸레’와 다름없는 존재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에 대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남성 중심사회의 성의식을 대변하는 여성 인물인 방혜원은 최선희를 먼지와 동일시한다. 박주원이 최선희와 외박한 것을 눈치챈 방혜원은 “봄은 딱 질색이야, 먼지가 너무 많아”(277)라고 말한다. 김선배와 같은 보편적 남성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지만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최선희에게 호의적인 박주원은 구속을 싫어하고 자유로움을 찾는 최선희를 나비의 모습과 동일시한다.

이처럼 최선희는 ‘먼지’와 ‘나비’라는 두 가지 대립되는 형상으로 동일시된다. 먼지는 더럽고 불결한 이미지인 반면, 나비는 자유롭고 화려하며 민첩하고 생명력이 강하다. 문학에서 나비는 다양하고 폭넓은 기의를 함유하는 구심점으로 기능해 왔다. 나비가 가장 보잘것없는 애벌레에서 그 어떤 생물보다 화려하게 변신하는 특성에 나비는 초월이라는 주제를 지닌 상징이다.¹⁷⁾ 현대의 소설에서도 나비 모티브는 현실 초월의 욕망으로 구체화되곤 한다.¹⁸⁾ 은희경도 「먼지 속의 나비」에서 역시 나비 모티브를 사용하여

15) 로이스 타이슨, 윤동구 옮김, 『비평이론의 모든 것』, 엘피, 2004, 206쪽.

16) 이현주,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본 은희경 소설 연구 - 『타인에게 말걸기』에 수록된 작품의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4쪽.

17) 최민성, 「문화콘텐츠 주제학 시론 - ‘나비’ 상징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8, 인문콘텐츠학회, 2006, 151~167쪽.

18)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작품으로 차현숙의 소설 「나비의 꿈」이 있는데, 이에 관

최선희를 바람 부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나비와 동일시한다. 나비는 이따금 사람들의 눈에 먼지로 착각될 때도 있지만, 늘 주변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갈 길을 선택해 날아간다. 먼지는 바람의 방향을 따라 날리지 만, 최선희는 바람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비행하는 나비처럼 시대의 윤리의 식을 거스르며 위태롭지만 악착같이 살아간다.

「北港香爐人人插」에서 린리즈에 대한 남성들의 뒷담화는 우선 그녀가 많은 남성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장밍타이의 결혼식에 온 사람들은 린리즈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수가 4~5 테이블 정도로 한 테이블에 10명 정도 앉는다고 가정하면 대략 4~5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측한다. 나중에 린리즈가 반대진영 위원으로 당선된 후 사람들은 그녀가 중요한 파벌의 두령과 잠자리를 가짐으로써 당선되었다고 하며, 그녀가 성소수 자적 남성 외의 각 파벌의 모든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녀와 잠자리를 가진 남성의 수를 계산할 때 더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파벌의 남성 수에서 그녀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은 남성 수를 빼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이라고 말한다.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는 식의 계산법에서 보이는 남성들의 린리즈에 대한 악평을 통해 작가 리양은 여성에 대한 사회의 억압을 돌출시키며 남성들의 모멸적 시선을 신랄하게 폭로한다.

린리즈에 대한 여성들의 시선 역시 부정적이다. 여성 권력 쟁취 모임에서 린리즈가 여성의 몸으로 남성을 전복시키자는 말을 하자 여성 대표들의 얼굴에는 이내 “분명한 경시와 적대적인 표정”(166)이 나타난다. 여성 모임에 참석한 자들은 여성의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 모인 소위 페미니스트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의식을 보이며 린리즈를 비난한다. 그녀들의 눈에 비친 린리즈는 창녀와 다름없는 존재인 것이다.

린리즈의 권력이 커짐에 따라 사람들은 그녀가 직접 정치에 나서면 반대 진영 정당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해 한점돌(2004)이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나비’의 표상체계 연구」에서 작품 속 나비는 부부관계의 가시적 본질로부터 탈출, 자아실현의 궁극적 초월을 상징한다고 논하였다. 그 외 전경린의 산문집 『나비』에서 작가는 여자의 나이 들을 나비의 변신으로 비유하며 도취와 비상의 황홀경을 맛보게 하는 초월적 기제라고 분석하였다. (최민성, 위의 논문 155쪽에서 재인용.)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 남성과 관계를 가진 린리즈는 반드시 병에 걸릴 것이며, 에이즈에 걸린 그녀를 국민당 내에 파견하면 국민당을 파멸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섬뜩한 말도 한다.

그러므로 타이완 인민들은 진정으로 이 린리즈에게 감사해야 한다! 사람들은 웃으면서 말한다 : 혁명과 정당 교체가 없어도, 심지어는 투명한 선거도 필요 없이, 반대 진영이 50년을 노력하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 청춘, 가정의 파괴로만 뒤집을 수 있었던 국민당을, 싸우지 않고서도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¹⁹⁾

이처럼 사람들은 린리즈가 당파를 막론하고 모든 남성을 자신의 몸속으로 끌어들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파벌의 남성들은 경유한 통로가 같은 셈이니 빈틈없는 합작을 할 수 있으며, 린리즈의 몸을 통해 대화하고 마침내 대연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리양은 이와 같은 강렬한 언어로 린리즈를 향한 주변의 그릇된 시선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린리즈는 ‘향로(香爐)’와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 ‘베이강의 향로에 온갖 향을 쬐는다’라는 속어는 원래 단순히 타이완 베이강 지역에 향화가 정성(鼎盛)한다는 뜻인데, 리양이 이 제목의 소설을 발표하고 난 후 향로가 성생활이 방탕한 여성, 혹은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여성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비난이 생기게 되었다. 타이완에서는 실제로 ‘北港香爐’라고 여성을 욕했을 때 법적 처벌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이 판결을 들은 리양은 ‘北港香爐’가 여성의식의 대두를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며, 결코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언급하였다.²⁰⁾ 린리즈는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방탕한 여성이라는 비난을 받지만, 그녀에게 주체적이고 강한 여성의식이 내재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19) 所以，台灣人民還真該感謝這個林麗姿呢！人們笑著說：不用革命，不用政黨輪替，甚且毋須秀過選舉，反對運動努力五十年，犧牲多少人生命、青春，多少家庭家破人亡所要打倒的國民黨，不是不打就可以成功了？(李昂，『北港香爐人人插』，九歌出版社，2010，171~172쪽.)

20) <https://zhidao.baidu.com/question/8332593.html> (검색일: 2018.9.30.)

4. 주체의식을 확립하는 방식의 차이와 한계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고찰은 주체로서의 개인의 탄생이 근대라는 시대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여성성의 전근대/근현대의 구분을 낳는 지표가 될 것이다.²¹⁾ 여성의 주체의식과 섹슈얼리티의 긴밀한 관계를 생각해볼 때, 섹슈얼리티 자체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거나 혹은 호명하는 핵심적인 기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작가들이 더 많이 주목하게 된 것이다. 자유로운 성적 욕망의 표상은 여성의 억눌린 욕망의 분출이라기보다는 남성의 욕망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진 일종의 사회적 시선을 여성이 거부한다는 측면이 더욱 뚜렷하다. 자기 내적인 측면과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여성의 자아의식 선언(여성 자신의 선택권 강조)은 종종 섹슈얼리티의 측면에서 제기되어 왔다. 그것이 여성문학이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중심 화제로 삼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간과할 수 없었던 이유이다.

은희경과 리양은 바로 이 자리에서 여성의 욕망을 통한 여성의 주체적인 의식을 추구한다. 여성의 성과 주체의식을 연결 짓고자 한 이 두 작가의 시도를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연관 지어 분석해 보면 여주인공들을 향한 가부장 사회 속 부정적 시선에 대한 반항의 차이와 그 한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4.1 한국-가부장적 윤리와 의 길항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의 성을 억압하고, 사회적 성 윤리와 가족 제도 속에서 여성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에 여성들은 반발하고 금기를 깨나감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 왔다. 자유로운 성에 대한 추구는 단순한 성적 유희나 생산이 아닌 성의 적극적인 해방을 의미하며 그동안 여성에게 유독 강조되어 왔던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활성화되기 시작한 페미니즘적 여성 주체의 형성은 은희경을 포함한 여성 작가들에 의해서 촉발된다.²²⁾ 1990년대 한국 여성 소설에서

21) 박형숙, 「현대여성소설의 섹슈얼리티 연구 - 90년대 여성 소설과 침부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8쪽.

자아 찾기는 대개 사랑의 모험담으로 나타²³⁾나는데 흔히 불륜²⁴⁾, 이혼 등의 가족문제를 둘러싼 소재는 기존의 가정과 결혼 제도를 해체한다. ‘가정’은 항상 윤리적 명분을 구성하는 강력한 장치로 작동한다. 오늘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전통적 대가족을 대체하면서 가정은 문화와 사회를 통어하는 힘으로 등극한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해체를 통해 기존의 남성 질서에 반항하는 여주인공들은 술한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는다. 가부장적 윤리와의 길항에서 이러한 여성은 어찌면 나비처럼 자유롭게 사회가 쳐 놓은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저항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먼지 속의 나비」에서 최선희는 남성의 권위주의적인 성의식에 저항하며 이를 거부하는 인물로, 나비처럼 자신이 원하는 자유와 자아를 찾아가는 개방적인 성의식을 가진 여성이다. 여성이 자유로운 성의식을 지니고, 성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해나가는 방식 또한 남녀관계에서 여성이 능동적으로 주체를 확립해 나가는 표현 방식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남녀에 대한 차별적인 세간의 의식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최선희의 시도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최선희에게 잠재된 성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남성적 기준에 맞추려는 이러한 관념은 이리가레가 언급했듯이 결국 여성이 다시금 자신을 객체화시키는 것이 된다. 이리가레에 따르면 주체에 관한 모든 이론은 항상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여성이 이런 이론에 굴복할 때, 사실은 자기와 상상 간의 관계의 특징을 포기하고 여성이 됨으로써 객체화에 굴복하게 된다.²⁵⁾ 최선희의 의식을 대변하는 「섹스, 우리 삶의 진실」에서 최선희는 한 명의 여성이 여러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이야기를 구성하였는데, 사회적 윤리와 도덕규범을 위반하는 이러한 행위는 바로 그녀가 의식적으로 남성들의 사고와 행동을 모방하여 여성의 ‘프리섹스’의 문제를 성적 방종으로 치

22) 이연숙, 앞의 논문, 147쪽.

23) 박형숙, 앞의 논문, 2쪽.

24) 은희경은 『타인에게 말걸기』에 수록된 다른 한 편의 소설 「그녀의 세 번째 남자」에서 유부남과 관계를 맺은 여성을 그렸고, 은희경과 함께 90년대의 대표적인 여성작가로 꼽히는 신경숙도 역시 「풍금이 있던 자리」(1993)에서 불륜 이야기를 다뤘다.

25) 露西·伊利格瑞, 屈雅君等譯, 『他者女人的窺鏡』, 河南大學出版社, 2017, 249쪽.

부하는 부권 사회 윤리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다. 최선희가 남성과 동등해지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일련의 시도는 결국 남성 중심 사회의 그릇된 성의식을 답습해버림으로써 본인이 타파하고자 했던 사회질서에 대한 저항 정신의 가치를 망각해버린 허울뿐인 반항인 것이다. 이 지점은 최선희가 내 건 대항폭력 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최선희는 비록 기존의 사회규범과 성가치관에 뚜렷한 반항의식을 지니고는 있지만, 자신이 질의하던 이데올로기의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만다. 이는 그녀가 진정한 성적 자유의 획득과 관념적 해방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4.2 타이완-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획득

리양은 시대의 반역자의 자세로 다양한 부류의 여성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여러 작품을 통해 여성의 성욕에 가해지는 사회의 부당한 제한과 이와 관련된 억압적 상황을 제시하였다.

『살부(殺夫)』(1983)에서 리양은 부권 중심 사회의 질서 속에서 여성이 당한 성의 구속과 학대를 비판하였고, ‘남편 죽이기’라는 극단적 방식을 통하여 견고한 남성의 중심 지위를 뒤집었다. 『암야(暗夜)』(1985)에서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금전 거래 및 성 거래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였으며, 『미로의 정원(迷園)』(1991)에서 리양은 다시 피식민의 상처를 한 몸에 안은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성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수립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추규이편이 분석한 바와 같이 리양 문학에서 여성의 성은 내면의 탐색과 자아를 구성하는 도구였다.²⁶⁾ 리양 스스로도 “성과 문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이 관계는 성별 의제, 그리고 성과 권력 간의 복잡한 관계로도 발전해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²⁷⁾

『北港香爐人人插』에 수록된 네 편의 소설은 ‘성’과 ‘정치’의 문제를 결합

26) 邱貴芬, 『“(不)同國女人” 聒噪：訪談當代台灣女作家』, 元尊文化企業股份有限公司, 1998, 99~100쪽.

27) 王明青, 「風口浪尖上叛逆女性-專訪台灣著名作家李昂」, 香江文壇, 2004. (艾尤, 「在慾望與審美之間-論20世紀80年代以降台灣女性小說的慾望書寫」, 蘇州大學博士論文, 2006, 68~69쪽에서 재인용.)

하여 여성의 사회적 권력 구조에서의 주변부적 위치와 주체의식의 상실을 사고하고, 여성이 현존하는 질서에 어떻게 반항하여 남성으로부터 평등한 권리를 얻을 수 있을지 노력하는 과정을 그렸다.²⁸⁾ 그중에서도 표제작 「北港香爐人人插」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의미 있는 사유를 가장 많이 드러낸 소설이다. 여주인공의 성적 욕망은 타이완 민주화 운동의 분위기에 휩쓸려 정치진영의 도구로 이용되고, 심지어 주인공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무기로 내세우기도 한다. 리양 문학 속의 여주인공은 단순히 성관계에서만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쟁취에서도 전복을 시도한다.

공간과 권력의 핵심에 위치한 신체는 환원될 수 없으며 전복될 수 없다. 신체는 신체를 박탈하고 소멸하는 재생산을 거절하고 배척한다. 이 세상에 신체라는 현실보다 더 취약하고, 더 괴롭힘을 당하는 건 거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세상에 신체보다 더 반항적인 것도 없을 것이다.²⁹⁾ 다른 세 편의 소설에 등장한 여성들과는 달리 「北港香爐人人插」속 린리즈는 여성의 신체를 내세워 주동적인 반항의 방식을 취한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며, 권력의 중요성과 여성의 권력이 박탈된 점을 의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세운다. 이는 이미 여성의 몸이 장기적으로 교환 장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타파하고 전복하는 의미가 있다. 즉 ‘여성의 몸=상품’에서 ‘여성의 몸≠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성의 몸~무기~권력’이라는 도식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北港香爐人人插」에서는 여성주의적 사고와 관련된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반대진영과 친한 여성 작가가 해외에서 온 유명한 여성주의자와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다. 이 여성주의자는 60년대에 좌파로 지칭되는 남학생들과 함께 운동에 참여하였는데, 그들은 같이 생활하면서 자유로운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남성들이 뒤에서 그 여성들을 ‘공공 버스’ 혹은 ‘공공 화장실’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사회의 변혁을 요구하는 남성들, 소위 이상을 지니고 양심과 지식이 있는 젊은 남성 지식인

28) 艾尤, 위의 논문, 69쪽.

29) Lefebvre, H. The Survival of Capitalism[A]. Reproduction of the Relations of Production[C]. Allison and Busby, 1978:896(謝納, 앞의 논문 50쪽에서 재인용.)

마저 여성에 대한 이러한 편견이 있다면, 가장 변혁이 필요한 건 계급이 아니라 성별일 것이며, 그들 자신일 것”(158)라며 여성주의자는 격분한다. 이러한 계기로 예전에 남성으로부터 공공 버스, 공공 화장실로 불렸던 이 여성은 이후 결국 여성주의자가 되고 만다. 여기서 리앙의 소위 여성주의에 대한 사고를 엿볼 수 있으며, 다음의 에피소드에서 리앙은 여성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여성학자, 변호사, 민의대표, 여성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여성 권력 쟁취 모임에서는 “당을 바꿔줘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꿔줘야 하고, 심지어 성별을 바꿔줘야 한다”(159)는 의견이 나오면서, 부권 사회를 비판하고 여성의 권력을 호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몇 명의 전위적인 단체에 소속된 30대 여성”(159)들은 모임이 끝난 후 백인 남성의 스트립쇼를 보러 가기도 약속한다. 여성의 권리를 선양하고자 하는 여성주의자들이 남성의 신체를 상품화하는 행위에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스스로가 소비자가 된 것인데, 이것은 분명 문제적인 부분이다. 남녀의 위치를 치환하였을 경우에도 합당해야만 진정한 여성주의인 것이다. 왕진청(王金城)은 리앙의 「北港香爐人人插」를 소형 폭탄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이 소설의 주제가 선명하고 여성주의의 맹점과 타이완 당대 정치에 대한 진지한 비판과 성찰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여성의 삶과 현실에 대한 심미적 재창조로부터 심령의 재창조로 향하는 넓은 공간을 진일보한 측면에서 제공하였다고 분석한다.³⁰⁾ 리앙은 이처럼 풍자적이고 신랄한 기법으로 여성주의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우려를 보여주며, 사회가 여성의 성 문제를 다시금 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린리즈의 성의식을 되짚어볼 때 그녀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성은 권력 교환으로의 성이지 영육일치의 진정한 성은 아니다. 왕진청에 의하면 섹스와 사랑의 분리에 린리즈는 좌절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기쁨과 긍지 그리고 성취감으로 가득하다. 정치 진영 남성과 여성의 섹스는 흔히 사랑과는 무관하며 정치와 자신의 욕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두 가지 욕망 중에서는 정치적인 욕망이 주체이다. 그러므로 린리즈는 ‘정치’여성이자 정치

30) 王金城, 「陰性書寫與政治追求的微塵吹再解讀香爐話說李昂」, 『理論爭鳴』1, 世界華文文學論壇, 2000, 64쪽.

‘여성’인 것이다.³¹⁾ 정치, 권력, 운동이 주요 키워드로 읽히는 1990년대의 타이완 사회에서, 린리즈를 비롯한 여성은 기존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교환·매매하는 인식을 타파하고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지만, 그러한 린리즈의 성은 결국 권력의 추구하고 정치로의 진출을 위한 교환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린리즈가 주체의식을 확립해가는 과정에서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5. 나가며

문학사적으로 보면, 1990년대의 한국과 타이완은 여러 유능한 여성작가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시대이다. 여성문학이 개화하고 본격화된 1970~80년대를 걸쳐 1990년대에 이르러는 많은 작가들이 저마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특히 이들은 여성의 ‘성’을 통한 주체의식의 확립에 주목해왔다.

여성문학적 관점에 주목해 보면, 여성의 몸은 ‘여성’이라는 것과 ‘몸’이라는 것 때문에 이중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다.³²⁾ 은희경과 리양의 「먼지 속의 나비」와 「北港香爐人入插」에는 자유로운 성의식을 지닌 여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그녀들은 사회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모멸적 시선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가치 기준을 고수한다. 이를 통해 그녀들은 ‘여성’과 ‘몸’이라는 이중적 억압에 반항하는 것이다.

「먼지 속의 나비」에서 최선희는 뚜렷한 주체적 성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를 선택한다. 그녀는 여성의 성에 대한 차별화에 저항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선희가 보이는 사고와 행동은 남성 사회 질서 속 그릇된 성의식과 자세를 답습해버리는 모순과 한계를 드러낸다.

31) 王金城, 위의 논문, 61쪽.

32) 이숙인, 「유가의 몸 담론과 여성」, 『여성의 몸에 관한 철학적 성찰』, 철학과현실사, 2000. (한국여성문학학회 편,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 2008, 130쪽에서 재인용.)

「北港香爐人人插」의 린리즈는 성을 무기로 내세워 남성으로부터 잃어버린 권익을 되찾고자 분투한다. 그 과정은 그동안 여성의 몸이 상품화되어온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타파한 뒤, 다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린리즈의 ‘성’은 단순 목적을 위한 또 다른 상품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그녀는 여성의 몸이 상품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끝내 바꾸지 못한다.

가부장 사회 속 가정의 모범과 도덕적 기준이라는 윤리 체제로 여성의 몸을 억압해온 한국 사회나, 비록 여성이 정치 진영에 진출하기는 하지만 끝내는 권력이 상실되고, 심지어 남성이 여성의 몸을 자기 진영의 정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앞세우는 타이완에서 진정한 여성의 ‘성’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성과 권력, 성과 윤리가 연결 지어질 때 여성의 성은 이미 자유롭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닐까. 최선희와 린리즈가 기존 사회 질서의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틀 안에 구속된 성과 여전히 교환 기능으로 작동하는 성, 이 두 가지 성의식이 문제가 된다면 이는 여성의 주체 의식 확립의 실패로 봐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은 향후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 김순진, 「여성의 몸과 몸의 공간 - 소설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25,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00.
- 고정갑희, 『성이론 성관계 성노동 성장치』, 여이연, 2011.
- 로이스 타이슨, 윤동구 옮김, 『비평이론의 모든 것』, 엘피, 2004.
- 박형숙, 「현대 여성소설의 섹슈얼리티 연구 - 90년대 여성 소설과 침부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안혜련, 『페미니즘의 거울』,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1.
- 엘렌 식수, 박혜영 옮김, 『메두사의 웃음/출구』, 동문선, 2004.
- 은희경, 『타인에게 말걸기』, 문학동네, 2004.
- 이연숙, 「은희경 소설에 나타난 여성 주체 연구 - 『타인에게 말 걸기』와 「그녀의 세 번째 남자」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7,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2.
- 이현주,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본 은희경 소설 연구 - 『타인에게 말걸기』에 수록된 작품의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최민성, 「문화콘텐츠 주제학 시론 - ‘나비’ 상징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8, 인문콘텐츠학회, 2006.
- 한국여성문학학회 편,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 2008.
- 艾尤, 「在慾望與審美之間-論20世紀80年代以降台灣女性小說的慾望書寫」, 蘇州大學博士論文, 2006.
- 郝譽翔, 「世紀末的女性靑慾帝國/迷宮/廢墟從『迷園』到『北港香爐人人插』」, 『東華人文學報』 7, 2002.
- 李昂, 『北港香爐人人插』, 九歌出版社, 2010.
- 露西·伊利格瑞, 屈雅君等譯, 『他者女人的窺鏡』, 河南大學出版社, 2017.
- 王金城, 「陰性書寫與政治訴求的微型炸彈-解讀香爐話說李昂」, 『理論爭鳴』 1, 世界華文文學論壇, 2000.
- 謝納, 「性別、身體與空間」, 『文藝爭鳴』 5, 2012.

❖ ABSTRACT

A comparison of female desire and subjective
consciousness in Eun Hee-kyung and Li Ang's works
– Centered on Beigang Incense Burner of Lust and
The Butterfly in the Dust

Shen, Chun-lan
Jo, Young-joon

Both *The Butterfly in the Dust* by the Korean writer, Eun Hee-kyung and *Beigang Incense and Burner of Lust* by the Taiwanese writer Li Ang, are novelettes that convey the idea of women's subjective consciousness by writing extensively on the subject of female-desire. The heroines Choi Seon-hee and Lin Lizi in those works, advocate the upcoming sexual rights and a beginning of the idea allowing women to gain control of their bodies, regardless of the opinion of the society and the people around them. Choi Seon-hee had an unrestrained and free attitude towards sex in the book. She also wrote an essay about the complex sexual relationship between a woman and several men. Choi Seon-hee's rebellious consciousness has a huge impact on deconstructing the ethics through which the society differentiates men and women when it comes to sexual problems, and the societal allowances afforded to each sex in the resolving of those problems. Nonetheless, by deliberately reproducing male's behavior means an affirmation on male's societal standards. Lin Lizi actively participated in politics, preaching openly for women to seize their personal power back from the men who oppressed them. In the subversion of women's previous absence or subordinate status, Lin's initiative was considered as progressive. Yet, she failed to make a break in the hopes of influencing the differences of thought regarding the situation of a woman's body as an object as seen in the eyes of men.

250 비교문화연구 제54집(2019.3)

Key Words : Eun Hee-kyung, Li Ang, woman's desire, woman's body,
subjective consciousness

■ 논문접수일 : 2019. 02. 10

■ 심사완료일 : 2019. 03. 01

■ 게재확정일 : 2019. 03. 11